

새신자 전문가가 파악한

새신자가 교회에서 싫어하는 행동 4가지

김민정 목사(좋은목회연구소 대표)





1 자리 맡아두고 못있게 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새신자들이 교회성도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짧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오는 순서대로 함께 앉으면 어떨까요?



2 몸을 터치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벌써 친한 것처럼 자주 몸을 터치하는 행동은 자제해주세요. 새신자가 아직 상대방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너무 **혹!**하고 들어오면 부담스럽죠. 친밀한 표현은 우리 조금만 더 친해진 다음에 표현해주실래요?



3 새치기하는 것

화장실, 식당, 예배당에 갈 때, 혹은 주차장에서 새치기하는 사람!
정말 미워요~ 내가 바쁘다고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 먼저 슬쩍 하지 말아주세요ㅠㅠ
새치기하는 당신을 새신자들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4 길을 막고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많고 분주한 통로에서 정신없이 이야기 하느라
길을 막고 있는 교회 성도들, 꼭 있죠? 지나가려고 해도 ㅍㅍ
새신자는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진로방해하기 전에 서로를 향해 한번만 더 배려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1. 은근슬쩍 반말?

교회에서 만나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친근하다는 식으로 슬쩍 말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면에 반말을 섞어서 하는 것은 친근하기 보다는 불쾌감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낯선 성도와는 반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2. “밥 먹고 가세요”

낮선 사람들과의 식사는 그리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그냥 보내주심이 좋겠죠. **선뜻 원하지 않는다면 밥 먹고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
시오.** 식사는 조금 더 편해진 다음에~



3. 영혼 없는 과한 칭찬

언제 봤다고 너무 과한 칭찬? 딱 들어도 영혼없는 입에 발린 칭찬은 오히려 불쾌감을 줍니다. 왜냐고요? 형식적인 말이라는 것을 새신자도 알고 있으니까요. 새신자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영혼없는 과한 칭찬보다 경청하는 깊은 관심은 어떨까요.



4. 앞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새신자 입장에서는 조심 조심 낯선 교회에 발을 디뎌 그나마 안정감이 들만한 자리를 골라서 앉았는데,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맨앞으로 가주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을리 없죠. '차라리 늦게 올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왕에 앉았는데 또 옮기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새신자처럼 보인다면 좀 배려해주면 어떨까요.



5. 다른 교회 디스! 디스!

마치 우리 교회만 진리인양, 혹은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인 것처럼 디스하는 건 정말 듣기 싫은 말입니다. 새신자에게는 교회가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기엔커녕 오히려 독선적으로 보인답니다.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만 나눠주세요.**

